

도둑 붙잡아 농구대 매달고 응징한 주민들

범죄를 근절을 위해 외지인의 방문까지 막았던 마을에서 도둑이 잡히자 주민들이 분노했다.

멕시코 우익스탄 마을 주민들은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수개월 전 외지인의 방문을 막고 마을 인근 외지인의 통행까지 차단해버렸다.

하지만 이런 처방도 답이 되지 못했다. 마을에선 크리스마스를 앞둔 22일 자동차를 훔치려던 도둑 4명이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흥분한 주민들은 마을 공원으로 도둑들을 끌고 갔다. 경찰에 신병을 인도하는 게 적법한 절차였지만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응징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허술한 공권력을 믿을 수 없다. 우리의 손으로 사법정의를 세우자는 목소리가 컸다." 고 말했다.



▲ 분노한 주민들이 붙잡은 도둑들을 농구대에 매달고 직접 응징했다. 사진=larepublica.pe

주민들은 도둑 중 2명의 옷을 벗긴 후 마을공원 농구대에 매달았다. 공원에는 마을 주민 수백 여 명이 몰려들어 그 모습을 지켜봤다. 도둑들은 농구대에 약 9시간가량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현장에 출현한 건 붙잡힌 도둑들을 구출하려고 나선 범죄조직이었다.

현지 언론은 "무장한 범죄조직이 도둑들을 구하기 위해 기습하듯 나타나자 주민들이 혼비백산해 뿔뿔이 흩어져 대피해야 했다." 며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러니 경찰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수밖에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형 뽑기 기계에 갇힌 4살 여아

호주의 한 4세 어린아이가 테디베어가 갖고 싶어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갔다가 갇혀 울음을 터뜨린 모습이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4세 여자아이인 포피 파이크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다. 포피의 가족이 식당 안에 있는 동안 포피는 자신의 쌍둥이 자매와 함께 밖으로 나와 인형 뽑기 게임을 했다.

하지만 번번히 뽑기에 실패하자 포피는 인형을 꺼내려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밖에서 문을 밀고 들어가야 하는 뽑기 기계 구조 특성상 들어갈 때와는 달리 포피가 혼자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했다.



▲ 인형 뽑기 기계에 갇힌 포피 파이크. 사진=호주 채널 7 뉴스 캡처

그러자 쌍둥이 자매가 엄마 펠라니에게 달려가 포피가 기계에 갇힌 것을 알렸고, 밖으로 나온 아이들의 부모는 딸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기계 안에 갇혀 울면서 우리를 두드리는 포피의 모습이 황당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귀여웠던 것.

엄마 펠라니는 "포피는 놀라서 울고 있었지만 나는 웃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펠라니는 이 모습을 찍었고, 그동안 포피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 빠져 나왔다.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인형 뽑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꼬맹이 때는 저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너무 귀엽다" 는 등의 댓글을 올리며 포피가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출로 징역? 사진 요청 많았다"



▲ 아랍 남성과 사진을 찍고 있는 아바나 놀. 사진=인스타그램(아바나 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노출 의상으로 화제를 모은 미스 크로아티아 출신 인플루언서 아바나 놀(30)(관련기사 본보 1449호 '노출의상 여성 축구팬 '체포 두렵지 않아')이 월드컵 후일담을 전했다.

이슬람 문화권인 카타르는 월드컵 기간 중 외국인 응원단에게 어깨 노출과 무릎, 배 등이 드러난 의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심한 노출의상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놀은 크로아티아의 첫 조별리그가 열린 날, 가슴골을 노출한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자 이후 더 과감하게 노출을 감행했다.


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 먼저 확인해 본 결과, 가슴이 드러난 원피스를 입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며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후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밝혔다.

그는 "경기를 보러 갔을 때도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랍 남성들, 여성들, 카타르 사람들 모두 내게 매우 친절했고, 사진 요청도 많았다." 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문화, 종교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게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적었다.

놀은 "카타르를 떠나려니 행복, 슬픔, 혼란이 함께 뒤섞인다. 이곳이 너무 그리울 것" 이라고 덧붙였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